

미-이란 휴전MOU 만료 후 불안에 메모리 제외한 증시 전반 약세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중동 불안에 3 대지수 하락했으나 메모리반도체 기대감 ↑

- 미 증시는 DOW -0.51%, S&P500 -0.52%, NASDAQ -0.32% 하락. 에너지, 기술주 외 전업종 하락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1.6%. NAND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, 미 상무부의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구매 자체 요구에 따라 샌디스크(+8.9%), 웨스턴디지털(+5.4%), 마이크론(+4.1%) 등 메모리주 강세. 엔트로픽이 2Q 매출액 14.6 배 급성장 및 창사 첫 흑자 달성 소식도 투자심리에 긍정적

미-이란 60 일 휴전 MOU 사실상 종료, 국제유가 상승압력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84.5(+2.6%), Brent \$90.9(+2.7%). 미-이란 휴전시한 만료 가운데 양측 협상 교착 여전. 이란 고위당국자는 외신을 통해 미국과 외교 실패시 이란이 전면공격 태세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으며, 미 에너지부도 이란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응해야할 문제로 언급
-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자극하며 30 년물 국채 5.31%(+5bp) 상승, 19 년만의 최고치,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 당시 레벨에 근접

8/14 발표된 소비지표는 부진, 통화정책 방향성 혼란

- 앞서 8/14 발표된 소비지표 부진하며 정책금리 인상 기대를 위축한 바 있음. 7 월 미 소매판매 MoM -0.6% 전월·컨센 하회. 또한, 8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1.0, 3 개월만에 하락.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늘어 소비심리 하방압력으로 작용
- 소비·고용 등 지표 둔화는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하나 유가 불안이 상존해 연준 통화정책 선택법 복잡. CME FedWatch 9 월 금리 동결 전망 65%로 여전히 우세하나, 전일 대비 소폭 축소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 %)	내용
AAPL	애플	-0.1%	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칩을 구매하지 말 것을 촉구. 한편 로스차일드는 애플이 막대한 AI 투자 비용을 통제하면서도 압도적인 기기 기반으로 소비자의 AI 소비 방식을 지배할 잠재력을 갖추었다며, 투자 의견을 '중립'에서 '매수'로, 목표주가를 \$260에서 \$400로 대폭 상향. 향후 5년간 견조한 아이폰 교체 수요와 폴더블폰 출시가 맞물리며 하드웨어 판매 및 서비스 매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
GOOG	알파벳	-0.6%	버크셔해서웨이의 2Q 비중확대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3위 등극. 한편 급증하는 AI 지출 자금을 조달 위해 사상 첫 호주달러화(AUD) 표시 채권 발행을 준비 중. 최대 \$5B 규모로, 3년, 5년, 10년, 20년 만기 채권 발행을 검토 중
BABA	알리바바	+0.7%	사모펀드 트루스타캐피탈에 자사 게임 부문인 '링시 게임즈'를 \$1.5B 이상에 매각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 진행 중.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클라우드, AI, 이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포트폴리오 효율화 전략의 일환. 한편 노트북 및 기타 소비자용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도록 설계된 신규 Qwen AI 모델을 출시. 동사의 최상위 모델인 'Qwen3.8 Max'의 가치치 공개. 이는 오픈 웨이트 AI 시장에서 메타(-3.5%)와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보
LUNR	인튜이티브 머신스	+7.2%	\$600M 규모의 위성통신사업 수주 소식에 주가 급등. 익명의 고객으로부터 우주 내 다중 위성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수주
WDAY	워크데이	-3.8%	사모펀드 실버레이크의 인수 협상 보도 이후 주가 급등한 가운데, 도이치뱅크('Hold')와 BTIG('Neutral')가 밸류에이션이 적정가치에 도달했고 성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근거로 투자 의견을 '매수'에서 일제히 하향 조정